

## 사무엘하 5.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삼하 5 장 1-25 절)

### 들어가기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아브넬'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이스보셋'의 정권이 갑자기 흔들리게 되자 '이스보셋'의 두 장군 '바아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을 죽인 후 그의 목을 베어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의 행위가 매우 악하다고 판단한 뒤, 저들을 처형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잃고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윗'을 찾아와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길 청하였고, 드디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과 시온 산성을 공격하여 되찾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인 '두로'의 왕 '히람'은 친히 사절단을 '다윗'에게 보내며 유대관계를 맺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블레셋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두 번씩이나 군사들을 보내어 '다윗'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자 시도 하였습니다.

### 1.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은 '다윗'을 찾아와 왕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3 절)

1) 이때 장로들이 밝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만 할 근거 3 가지? (1-2 절)

- ①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 곧 유다와 이스라엘은 다 한 아버지의 자식들임!
- ② '사울'이 왕으로 다스릴 때에도 이스라엘을 이끈 사람은 사실 '다윗'이었음! - (승리한 전쟁)
- ③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 -> 곧 이것이 '하나님의 뜻!'

■ 이때 2 절 마지막의 장로들의 고백을 주목..

- ☆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_\_\_\_\_가 되고, 이스라엘의 \_\_\_\_\_가 되리라'
- ☆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요,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주요한 표현 중에 하나!
- ☆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다윗'을 예수님의 '예표'라 표현. (ex.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

2) 이에 장로들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3 절)

■ 참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횟수는? 총 \_\_\_\_\_ 번

- ☆ 기름부음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상징! +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증표!
- ☆ 곧 '다윗'이 3 번씩이나 기름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완벽하게 준비시키셨고, '다윗'을 축복하셨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3) 이때 '다윗'은 장로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3 절)

☆ 그럼,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

☆ 목사 개인 생각...

-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끌겠다는 엄숙한 선언.
-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다윗'에게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는 결단. (참고: 삼하 3 장 21 절, 아브넬의 제안)

- 4) 이로 인해 ‘다윗’은 30 세부터 왕이 되어, 40 년 6 개월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4-5 절)  
 ☆ 30 세 -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 7 년 6 개월을 다스림  
 ☆ 37 세 -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 33 년을 다스림.

- 참고: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나이는? \_\_\_\_\_ 세..  
 ☆ 이스라엘 민족들은 \_\_\_\_\_ 세가 되어야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 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 (민수기 4 장 3 절)

2.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제일 먼저 ‘\_\_\_\_\_’을 공격하였습니다. (6-10 절)

- 1)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저들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다윗’을 이길 것이라고 ‘다윗’과 그의 군대를 조롱하였습니다.  
 ☆ Why?  
 - 결코 ‘다윗’이 예루살렘 성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 9 절 -> 당시 예루살렘은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벽을 쌓아 감싸고 있었음  
 ‘밀로’ = 히브리어로 ‘채우다’ 는 뜻, (성벽 안에 또 다른 인공성벽을 쌓음).  
 (참고: 앗수르의 공격을 대비하던 히스기야 왕도 이 ‘밀로’를 다시 정비하게 함)

- 2) 이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의 ‘하수구’ 또는 ‘수로’를 이용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고 승리하였습니다.  
 ☆ 결국 당시 여부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불구자라 하더라도 다윗의 공격을 능히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 그러나 자신들이 조롱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말았음.  
 (ex. 여리고 성의 여호수아)

- 이때 생긴 이스라엘의 속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 여기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여부스 족속을 빗댄 말.  
 ☆ 실제로 여부스 족속은 이때부터 ‘다윗’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동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고 함.  
 ☆ 이에 대한 한 신학자의 코멘트  
 -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과 지식만 믿고 자랑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

- 3)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윗은 ‘시온 산성’을 취하여 그곳에 거하며, 이때부터 사람들은 ‘시온 산성’을 ‘다윗 성’ 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 4) 10 절 말씀 주목: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_\_\_\_\_ 하여 가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이란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두로 왕 ‘히람’은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며 교류하기를 바랬습니다. (11-12 절)

1)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다는 한 증거가 됨.

■ 두로 = 이스라엘 국경에서 남쪽으로 24km 떨어진 지중해의 섬나라 (현재는 육지와 길로 연결)

☆ 당시 두로는 이미 여러 나라들과 교역하며 강대국으로 발전하고 있었음. (수 19:29 절)

☆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안정시키자 제일 먼저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고자 했다는 것!

-> 이때 ‘히람’ 왕은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다윗이 성을 건축하는 일을 돕게 함.

-> 이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도 ‘두로’는 물자를 공급함.

2) 다윗은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기 때문이란 사실을 잘 깨달아 알았습니다! (12 절)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우리가 있고,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바로 깨달으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 4.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11 명의 아들을 더 얻었습니다. (13-16 절)

1) ‘다윗’은 헤브론에서 얻은 \_\_\_\_\_ 명의 아내 외에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처와 첩을 얻었습니다.

☆ 이때 ‘다윗’의 처와 첩이 총 몇 명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음.

☆ 확실한 것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6 명 +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11 명 => 총 17 명의 아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

☆ 아마도 이렇게 다윗에게 많은 아내와 첩이 있었던 것은 정치적, 정략적 이유 때문일 것.

☆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위배되는 것이었다는 사실!

☆ 곧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약한 존재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

☆ 참고: 열왕기상 11 장 1-3 절을 보면, 솔로몬은 후궁이 700 명 + 첩이 300 명

➔ 3 절: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 (곧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기록!!

### 5.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재차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17-25 절)

1) 그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 ✧ 가나안에서의 영향력과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함!
  - 당시 블레셋은 오래 전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의 군대를 초토화 시킨 뒤부터 지금까지 가나안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족속이었음.
- ✧ 곧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완전히 장악하여 하나로 결속시키고 나라를 강하게 하기 전에 선제 공격하여 앞으로도 가나안의 지배력을 유지하고자 판단.

2) 블레셋이 쳐들어 오자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19 절)

- ✧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에 출전한 ‘다윗’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 이라 칭하였음.
  - ‘바알브라심’ => 문자적으로 ‘돌출하시는 하나님’이란 뜻.
  - 성경 => ‘하나님께서 물을 흘림 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흘으셨다!’
- ✧ 이때 도망치던 블레셋 군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다 버리고 도망함.

3) 22 절 주목 -> 그런데 이렇게 한번 패한 블레셋 군대는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음!

- ✧ 여기서 새삼 깨닫는 것은 성도의 삶에는 매일 선한 싸움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
- ✧ 곧 한번 싸워 이겼다고 만족하거나 안일하게 생각지 말고, 항상 믿음 안에서 깨어 있으려 노력하며,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고 노력해야만 할 것!

- ✧ 그런데 이때도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23 절)

4) 주목할 것! : 23-24 절

- ✧ 이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소리가 들리면 블레셋을 급습하라고 명령하심!
- ✧ 그러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치실 것이라 말씀하심!

5) 그럼 왜 하나님은 처음처럼 블레셋을 바로 치라고 하지 않고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6)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여 믿음으로 기다렸다가 블레셋을 급습하여 친히 블레셋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할 때 우리 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로 묵상했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 중보기도 나눔.